

보도일시 (인터넷) 2024. 2. 6.(화) 11:00
(지면) 2024. 2. 7.(수) 조간

배포 2024. 2. 6.(화) 06:00

연안여객선 타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향 다녀오세요

- 2. 8.(목) ~ 2. 12.(월) 설 명절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고향으로 오가는 귀성객과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 등 연안여객선 이용객을 위해 ‘설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여 2월 8일(목)부터 12일(월)까지 5일간 시행한다.

올해 설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약 21% 많은 총 17만 6천 명(하루 평균 약 3만 5천 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설 당일인 2월 10일(토)에 이용객(약 4만 7천 명)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예비선 8척을 추가로 투입하여 평소 130척이던 여객선을 138척까지 늘려 운영하고, 운항 횟수도 평소보다 10% 증가된 4,094회까지 확대하여 연휴 기간 중 여객 증가 수요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안여객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사전에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 점검을 시행하고, 여객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기차량의 화재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여객선 특별교통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비상 상황에도 철저하게 대비한다.

아울러, 여객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여객선의 출발·도착 예정 시각, 섬 여행 정보 등을 누리집(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여객선 교통정보서비스(PATIS)’를 적극 홍보하고, 여객선과 터미널의 위생·방역 상태를 수시로 점검·관리하는 한편, 약 540대 규모의 터미널 임시주차장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설 연휴는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기간이 짧아 단기간에 많은 인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국민들이 설 연휴기간 동안 안심하고 편리하게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을 빈틈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 | | | |
|-------|-------|-----|-----|--------------------|
| 담당 부서 | 해운물류국 | 책임자 | 과 장 | 도경식 (044-200-5730) |
| | 연안해운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종훈 (044-200-5733) |

□ 개 요

- (목적) '24년 설 연휴 연안여객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연안 교통체계 구축·운영 및 여객선 이용객 편의 증진
- (기간) '24. 2. 8. (목) ~ 2. 12. (월) / 5일간 * ('23) 1. 20. (금) ~ 24. (화) / 5일간
- (이용예측) 기간 중 96개 항로(138척)에서 총 176천명(일평균 약 35천명) 이용, 2.10.(토)(설 당일)에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KOMSA 분석)

□ 주요 내용

① 여객선 운항 확대

- (증선·증회) 대책기간 동안 ①운항척수* 130척→138척(6.2% ↑), ②운항횟수 3,707회→4,094회(10.4% ↑), ③이용객 수 (평시) 145천명→(설) 176천명(21.4% ↑)으로 증대

② 여객선 및 이용시설 안전관리

- (특별점검) 관계기관 합동점검*(지방청·해경·KOMSA·한국선급·지자체, 1.15. ~ 26.) 및 비노출 현장점검(연안해운과, 1.16. ~ 31.) 실시
- (전기차 화재 예방) 카페리·차도선에 선적된 전기차량의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별(KOMSA지부) 전기차량 화재 예방 교육* 실시
 - * 전기차 여부 확인 및 분리 선적, 운항 중 배터리 충전 금지 및 전기차 화재 대응 요령 등
- (전산시스템 비상사태 방지) ^{한국해운조합}대표시스템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운항관리시스템의 비상사태 방지를 위한 시스템 특별점검 추진

③ 이용객 편의 증진 등

- (여객선 교통정보 제공) 여객선 출발·도착 시각, 운항 상태 등을 제공하는 여객선 교통정보서비스(PATIS)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운영
- (주차장 확충) 여객선터미널 인근 부대시설을 활용한 임시주차장 추가 확보(총 540대 규모)로 여객선 이용객 주차 편의 제고
- (위생·보건관리 강화) 최근 빈대 확산에 따른 관계기관별 다중이용 시설(터미널·여객선) 방역·소독 및 시설 보건·위생상태 수시점검 등